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isure Time of the Korean Elderl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부교수 박 미 석*

박사과정 이 유 리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Park, Mee-Sok

Doctoral Course : Lee, Yu-Ri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 elderly people spend their leisure time in a day. In order to do this, we analysed the time diary which were collected through the national investigation made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1999 and executed the frequency analysis, the One-way ANOVA and the Duncan's post hoc tes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elderly people spent their leisure time passively and negatively. Especially, they spent their most leisure time watching TV. Second, Those who were male elderly people, had their spouses and their own cars, and lived in an urban area etc, spend their leisure time executing positive leisure activity such as self-development activity and sports activity.

▲ 주요어(Key Words): 노년기 여가(leisure of the elderly), 여가활동유형(type of leisure activity), 여가활동시간(time of leisure activity), 시간일지(time diary).

1.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오는 2022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가정적 역할상실, 생활시간적 무위고(無爲苦) 등이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 노인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과제는 생활의 대부분인 여가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있게 보내는가 이다. 현대 노년기의 여가생활은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석, 2002).

여가시간이 적었던 과거에는 여가가 인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생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에는 점차 여가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직업과 가족관계 내에서 주도적 역할의 상실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년기의 여가는 그 어느 연령층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 여가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 주저자: 박미석 (E-mail: msp@sookmyung.ac.kr)

사회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노후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할애는 사회변동 속에서 발생된 노인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여가시간의 경우는 생리시간이나 노동시간과는 달리 비결정적이며, 자유롭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일정한 생리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이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일상 여가생활모습을 일일 시간사용 조사를 통해 어떠한 여가활동에 얼마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행복한 노년기 삶의 방안마련을 위한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여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김성연·박미석, 2000; 김애련·한내창, 1997; 홍성희, 1998 등)은 구체적인 여가활동시간 조사보다는, 주로 각 여가활동유형에 참여한 횟수 또는 주관적으로 참여한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루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대다수의 기존연구들은 표집방법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한국 노인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2000)에서 199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의 하루 24시간의 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60세 이상의 노인이 하루 중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여가활동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통계청(2000)에서 제시한 행동분류표상의 여가활동유형 분류를 재구조화하여 여가활동유형별 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노인의 개인, 가족, 거주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유형별 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 선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여가활동의 특성

노년기의 여가는 개념과 활동특성에 있어서 청장년기 여가의 개념과는 약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여가개념은 사회·가정적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

간을 의미하지만, 노년기 여가는 긴 시간을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1) 노년기 여가활동의 개념

합목적의 여가활동은 일의 피로감으로부터 벗어나 생태학적 리듬을 회복하고,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새로운 내적·외적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인격적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화로 인해 빼앗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회복하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김애련·한내창, 1997).

그러나 노년기에 있어서 여가활동이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려는 고독하고 따분한 노력"(Kelly, 1993)이라고도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의 흑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Allen & Chin-Sang(1990)의 경험적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일은 자신의 사회적 독립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하는 직업적 또는 의무적 활동인데 반해, 여가는 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활동 또는 무(無)활동에 몰입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여 주고, 심리적 복리를 향상시켜 주며, 사회적 통합을 제고시켜 주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적극적이고 투자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시간 채우기, 또는 시간 보내기의 성격이 많으며, 투자적 의도가 거의 없는 자원의 투여 또는 시간 배분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애련·한내창, 1997). 그러나 노년기의 여가는 일하고 잠시 쉬는 여가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기에 때문에, 여생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가활동을 어떻게 생활화하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주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애련·한내창, 1997; 박미석, 2002; 홍성희, 1998).

2) 노년기 여가활동의 특징

노년기 여가활동과 관련한 대표적 이론은 사회활동이론과 사회유리설을 들 수 있다. Neugarten & Havighurst(1961)에 의해 제기된 사회활동이론에서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할에서 후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사회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노화에 적절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인과 달리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사회활동 참여적인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을 비롯한 집회참여활동 등이 여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유리설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유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노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위안이나 휴식 등 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Cumming & Henry, 1979). 이는 노년에 있어서 소일적인 휴식이 만족스러운 여가로

해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Kaplan(1960)은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노인의 특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①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려는 욕구 ② 자신이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③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은 욕구 ④ 특정한 업적이나 성과를 올려 보려는 욕구 ⑤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⑥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자극을 받아보려는 욕구 ⑦ 가족관계를 원만히 가지려는 욕구 ⑧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정신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등이다. 더욱이 노소(老少)를 불구하고 현대 여가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해소, 자기존중과 자아정체성 유지 그리고 생활만족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노년기에 촉발되는 경제적 문제와 신체적, 심리적 소외감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노후의 적응은 물론 만성화된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여가선용은 삶의 질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박미석, 2002).

2. 노년기 여가활동의 유형 및 실태

여가활동 유형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참여빈도, 내용, 특성에 기초하여 학자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실태조사는 주로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대해 일정기간 활동횟수나 참여정도를 조사하는 방법과 정확한 시간사용 조사를 통해 여가시간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홍성희, 1998; 한혜원, 2000 등)은 주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있을 뿐 여가시간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노년기 여가활동의 유형

국내외 학자들이 분류한 노년기 여가활동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Wallner(1973)는 노년기 여가활동을 크게 능동적 여가활동과 수동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능동적 여가활동은 가족, 친구 또는 단체 집단 내에서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과 같은 인적교류에 의존된 여가와 취미생활, 독서 등과 같은 사물에 의존된 여가 그리고 여행 등이며 수동적 여가활동은 TV 시청, 영화관람, 라디오청취 등의 대중매체에 의존된 여가와 수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단순 휴식 등이다.

Kelly & Steinkamp(1986)는 28종류의 노년기 여가를 문화적 여가, 여행, 체조 및 스포츠, 가족여가, 실외 레크레이션, 사회적 활동, 지역사회 조직활동, 가정에 기초한 활동 등의 8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한편 개인들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를 '혼자하는 활동'과 '친화적 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혼자하는 활동'은 쇼핑, 가사돌보기, 요리, 공예품 만들기,

정원가꾸기, 운동, 낚시 등의 '적극적 활동'과 TV보기, 낮잠자기, 휴식 취하기, 퍼즐 맞추기, 독서 등의 '소극적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친화적 활동'은 다른 사람 돕기, 교회나 기도회 참석, 친지나 친척 방문, 노인회관 참여, 용돈 벌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Allen & Chin-Sang, 1990).

<표 1>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분류

연구자(년도)	여가활동 유형
Wallner(1973)	능동적 여가활동/ 수동적 여가활동
Gordon et al. (1976)	감각적 쾌락추구활동/ 창의적인 활동/ 발전적활동/ 기분전환활동/ 긴장해소활동
Kelly & Steinkamp (1986)	문화적 여가/ 여행 및 스포츠/ 가족여가/ 사회적 활동/ 지역사회조직활동/ 레크레이션/ 가정에 기초한 활동
Allen & Chin-Sang (1990)	혼자하는 활동/ 친화적 활동
Iso-Ahola et al. (1994)	운동지향적 활동/ 옥외레크레이션 활동/ 팀 스포츠/ 취미/ 가정에 기초를 둔 활동/ 기계화된 옥외 레크레이션/ 기타활동
Reizes et al. (1995)	혼자 활동/ 공동 활동/ 공식적 활동
홍순혜(1984)	친밀활동/ 단체활동/ 개인활동
김광득(1990)	신체적 활동/ 지적 활동/ 예술적 활동/ 사교적 활동/ 실습 활동
유도진(1991)	능동적 활동(예술, 신체, 종교, 사회활동) 소극적 활동(단순 여가활동/ 정서적 활동)
이선미(1992)	자기개발을 위한 단독활동/ 문화활동/ 종교 및 단체활동/ 노인정/ 가족중심활동
서병숙(1993)	가족중심 여가활동/ 가정밖 여가활동
송정선(1996)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사회참여 활동 사교오락활동/ 소일활동
김중만(1998)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사회경제활동 사교오락/ 소일활동/ 스포츠활동/ 독서활동
김성연·박미석 (2000)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오락/ 소일활동/ 스포츠 및 건강활동

Reizes, Mutran & Verrill(1995)은 영화나 비디오 감상, 스포츠 감상, 쇼핑, 전시회 방문, 취미활동 등의 '혼자하는 활동'과 친구나 친척집 방문, 어린이와 놀아주기, 교회 행사 참여하기 등의 '공동으로 하는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교양강좌 참여 등의 '공식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순혜(1984)는 노년기 여가활동을 친밀활동, 단체활동, 개인활동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친밀활동은 가족, 친척, 이웃과의 활동형태이고, 단체활동은 종교단체, 노인정, 노인학교, 취미단체, 운동단체, 정치단체, 지역모임,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 개인활동은 TV 시청, 라디오 및 음악감상, 독서, 가사일, 영화관람, 혼자 하는 취미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중심의 여가유형과 가정 밖에서의 여가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가족중심의 여가유형에는 가족과의 대화, 정원수 손질, TV 및 라디오 듣기 등이 포함되고 가정 밖에서의 여가유형에는 노인정 및 공원 가기, 노인학교 참여, 약속터 가기, 등산이나 운동, 지역사회활동 등이 포함된다(서병숙, 1993).

김성연·박미석(2000)은 문예, 수집, 서예, 그림 그리기, 독서

등의 취미생활과 교양강좌, 외국어강좌, 컴퓨터강좌 등을 자기개발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가족중심활동에는 친척 및 자녀 집 방문,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외식, 손자녀 돌보기 및 놀아주기, 정원손질 및 정원가꾸기 등을 포함하고 종교활동,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참여는 종교 및 사회참여활동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각종 문화행사·스포츠 관람, 바둑·장기 등의 놀이, 친목회 모임 등은 사교 및 오락활동으로 TV 및 라디오 시청, 낮잠 및 휴식 등을 소일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골프, 등산, 체조 등은 스포츠 및 건강활동으로 포함된다.

이상의 선행문헌들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자기개발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활동, 사회참여활동, 사교오락활동, 소일활동의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개발활동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려는 여가활동으로서 학습이나 독서, 취미활동, 강연회나 노인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등산, 여행, 낚시를 비롯한 각종 놀이 및 운동을 하는 것이다.

가족중심활동은 가족과의 대화, 자녀 집 방문, 손자녀 돌보기, 화초 기르기 등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하거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청(2000)의 '생활시간조사 보고서'는 가족과 친구와의 교제를 명확히 분류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중심활동 중 '손자녀 돌보기' 활동은 여가활동이라기 보다는 다소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여가유형에서 가족중심활동은 제외하였으며, 단 가족과의 교제나 전화통화는 사교오락활동으로 포함하였다.

종교활동은 예배, 미사, 법회 참석 등의 종교집회 모임참가와 개인적인 기도 등의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다. 사회참여활동은 지역사회관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조기청소, 청소년 선도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노후 생활의 보람을 찾고 있는 여가유형이다. 또한 사교오락활동은 동년배의 노인들과 노인정이나 공원 등에 모여 세상이야기를 하며 교제의 폭을 넓히거나, 영화나 연극관람, 노래부르기, 화투·바둑·장기놀이 등을 하며 보내는 여가활동이다.

소일활동은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TV시청, 라디오 청취 및 특별히 하는 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의 소극적인 여가유형이다. 그러나 현대 미디어사회에서는 TV와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시청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여가활동이 노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중요한 여가영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정현일(1998)은 '노인의 TV시청 실태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노년기 TV시청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여가활동은 일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단순 휴식활동과는 반드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통계청(2000)의 생활시간 행동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개 인 유 지	수면	참 여 및 봉 사 활 동	이웃,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식사 및 간식		지역 공동체 활동
	개인관리		사회참여 활동
	건강관리(의료적)		자원봉사
	기타 개인유지		교제활동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교 제 및 여 가 활 동	대중매체 이용
	무급가족종사일		일반인의 학습
	농림어업 무급가족종사일		종교 활동
	자가소비위한 농림어업일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구직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취미 및 그의 여가활동
	기타 일관련 행동		교제, 여가 관련 물품구입
학 습	학생의 학교 학습	이 동	기타 여가 관련 활동
	학생의 학교외 학습		개인유지 관련 이동
	학습관련 물품구입		출·퇴근
가 정 관 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이 동	그의 일 관련 이동
	의류 관리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청소 및 정리		가정관리 관련 이동
	집 관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참여, 봉사활동 관련 이동
	가정경영		교제활동 관련 이동
	기타 가사일		그의 여가활동 관련 이동
가 족 보 살 피 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기 타	기타 이동
	초·중·고등생 보살피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배우자 보살피기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외 기타
	그외 가족 보살피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통계청(2000)의 생활시간 행동분류(표 2 참조)를 <표 3>과 같이 (1) 사회봉사활동, (2) 사교오락활동, (3) TV, 신문 등 대중매체 이용, (4) 자기개발활동, (5) 종교활동, (6) 문화관람활동, (7) 스포츠 및 레저활동, (8) 단순휴식으로 재유형화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여가활동 실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1996)가 전국의 저소득층 노인 1,0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가 7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투·장기 등의 놀이가 26.5%, 공원, 복덕방, 경로당 등에서 소일이 17.4%, 신문·잡지·서적 등 독서활동이 9.5%, 등산·낚시·산책 등 운동이 6.9%, 예술관련 활동은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에서도 역시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94.6%)가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친척 모임(41.0%), 종교활동(33.6%), 신문·책보기(27.6%) 등으로 개인적

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운동·등산 등 체력 관리를 위한 취미활동은 16.1%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여가활동 형태에서도 도시노인은 공원, 복덕방, 경로당 등에서, 그리고 농촌 노인은 라디오, TV 시청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 노인이 공원, 복덕방, 경로당에서, 여성노인은 독서활동, 가족중심활동에서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있는 노인보다 TV 시청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년기 여가활동 행태는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 단체활동보다는 개인중심 활동, 사회활동보다는 가족중심활동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서구의 노인들은 운동경기 참여 및 관람 문화 및 예술적 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유형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의 참여율이 저조하다(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0).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실태를 조사한 한국방송공사(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여가 중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가장 많아서 평일에도 2시간이 넘고, 토요일에는 3시간 이상, 일요일에는 4시간 이상이다. 텔레비전 시청 외에 1시간 이상인 활동은 평일에는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제, 레저활동이다. 연령별 여가시간을 보면 남자는 40대에 가장 적다가 50대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70대 이상이 되면 생애기간 중 가장 많은 여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여성은 60대에 최고가 된 후 70대 이상에서는 다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세대는 일하는 데에만 익숙하여 온 세대이다. 전통적으로 여가를 즐겁게 또는 창조적으로 보내는 것은 부자나 권력 있는 특권층의 독점물처럼 인식되어 왔고, 일반서민의 경우는 여가활동을 죄의식시 하는 가치관마저 지녀왔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산업화·도시화함에 따라 여가생활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 영역이 되었으며, 노인의 생활패턴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노년기 여가활동은 개인의 제반여건에 따라 대체로 보내는 여가유형이나 그 내용이 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3. 관련변인 고찰

1) 개인관련변인

(1) 성별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가족중심적 생활행태 비율이 높다. 김애련·한내창(1997)에 의하면 남성들은 '교양활동', '취미활동', '관람·청취', 그리고 '어울려 놀기'를 즐기는 반면, 여성들은 '가족중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자노인은 종교활동에, 남자노인은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 여가활동정도에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결과(이현숙, 1994; 홍성희, 1998)도 있다.

(2) 연령

연령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며(Gordon, Gaitz, & Scott, 1976), 특히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홍성희, 1998). 한편 정미자(1997)의 연구에서는 60-64세의 노인은 주로 종교활동과 사교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79세의 노인들은 사회단체활동에 많은 참여를 보였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종교활동 참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련·한내창(1997)의 연구에서는 60대는 '어울려 놀기'와 '부업' 활동을 많이 하고, 70대 이상 노년층은 여가적 '집안일'과 '단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다. 이상을 볼 때 연령이 증가하면 절대적인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적극적인 여가참여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력

Havighurst(1974)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 체력관리, 클럽활동, 봉사활동, 독서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수면을 취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국내 선행연구결과에서도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이선미, 1991; 송정선, 1997; 홍성희, 1998).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 그리고 종교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공원이나 복덕방, 경로당에 가는 등의 소일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많이 한다.

(4) 취업여부

취업여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력과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취업여부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중에서도 은퇴 이전의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업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부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취업상태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결정하고, 여가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여부에 따른 노년기 여가활동참여도는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있다(홍성희, 1998).

2) 가족관련변인

(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라라도 여가활동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배우자의 부재가 노인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Larson, 1978). 이선미(1991)도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생활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되어 매우 다른 여가활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양활동'을 많이 하는 반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여가적 '집안일'과 '종교'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련·한내창, 1997).

(2) 취학전 아동유무

취학전 아동유무에 따른 노년기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김형식(1983), 임미숙(1985)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가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는 손자녀 돌보기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여가활동 참여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자노인은 집보기, 집안일, 친구 및 친척 방문, 라디오 청취, 손자녀 돌보기의 순으로 여가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최성재, 1986). 이를 볼 때 취학전 아동유무는 노년기 여가활동에 동기부여 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라 노년의 일상적인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 자가용 유무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용 유무에 따른 노년기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가용 유무는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기도 하며, 자가용의 이용은 개인의 활동성과 가족여가활동에 순기능을 하므로 이는 자기개발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의 주로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3) 거주관련변인

(1) 거주지역

홍성희·김성희(1997)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다른 지역 거주노인보다 적극적 활동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른 여가경험과 여가기회의 제약 및 역할수행과 관련된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생활환경과 생활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홍성희, 1998).

(2) 농가여부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여가활동 실태를 비교한 김형식(1983), 최성재(1986)의 연구에 의하면, 농가여부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과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여가적인 '집안일'과 서예, 목상, 단전호흡 등의 '정서활동'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련·한내창, 1997).

(3) 주택유형

근린환경의 의미가 포함된 주택유형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를 친지 및 이웃과 함께 보내면서 만족을 얻는 것을 볼 때, 주택주변의 생활환경은 노인 여가활동 범위와 참여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홍성희·송정선(1997)의 연구에 의하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사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주택보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변에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주택소유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다. 이는 활발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요구되므로,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소유는 여가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성희·송정선, 1997).

(5) 거주면적

거주면적에 따른 노년기 여가활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소득, 총자산 등의 경제적 사정은 노년기 여가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장인협·최성재, 1994). 그러나 통계청(2000)의 자료에는 월평균 가계소득 또는 총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용 유무 및 주택소유 여부와 마찬가지로 거주면적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총자산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에 따라 노년기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일 노년기 여가활동유형별 시간과 전체 여가시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연령, 성별, 학력, 취업여부, 배우자유무, 취학전 아동유무, 자가용유무, 거주지역, 농가여부, 주택유형, 주택소유 여부, 거주면적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에 따라 1일 노년기 여가활동유형별 시간과 전체 여가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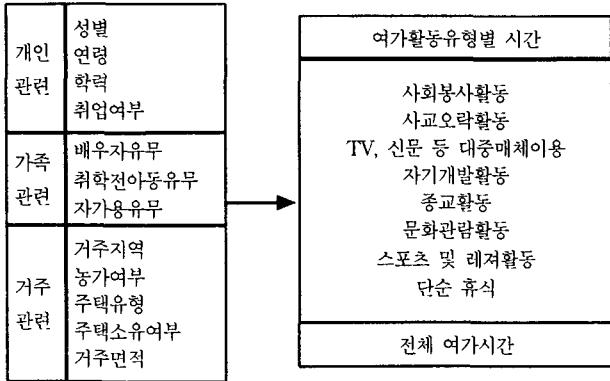
<연구문제 1> 노인의 1일 여가활동유형별 시간과 전체 여가시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일 여가활동유형별 시간은 배경 변인(개인관련, 가족관련, 거주관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1일 전체 여가시간은 배경 변인(개인관련, 가

죽관련, 거주관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제한점

연구대상은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이다. 본 연구는 2차적 분석(secondary analysis)으로써 분석 자료는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통계청(2000)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시간일지(time diary)에 의한 하루 24시간 행동기록이며, 전체적으로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13,210 케이스이다.

한편 원자료(raw data)에서 여가활동과 매우 관련성이 있는 월평균 가계소득이나 총자산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경제사정을 자가용유무, 주택소유여부, 거주면적 등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따른 여가활동시간을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1>의 1일 여가시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2, 3>의 배경 변인에 따른 1일 여가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비교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여가활동 유형화

노년기 1일 여가활동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은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여가활동의 유형화는 선행연구(김성연·박미석, 2000 등)를 기초로 하여 통계청(2000)의 생활시간 행동분류(표 2 참조)를 재구조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반사회 등 지역 공동체 활동, 집회 등 사회참여 활동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노년

기 여가활동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족·친지와와의 교제, 바둑, 장기 등 놀이 등을 사교오락활동으로 포함하였다. 생활시간조사 보고서(2000)에서는 가족과의 교제활동과 친구와의 교제활동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가족중심의 여가유형은 제외하였다.

한편 인터넷, PC통신 등 컴퓨터 정보이용은 수동적인 매체인 TV, 신문 등과 구분하여 대중매체 이용활동에서 제외하고 컴퓨터 관련 학습 등의 자기개발활동에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TV, 신문 등 대중매체 이용과 마찬가지로 소일적 활동으로 포함되었던 담배를 피우거나 아무 것도 안하고 쉬는 시간을 본 연구에서는 단순 휴식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표 3> 여가활동의 유형화

여가활동 유형	통계청(2000)의 분류 번호*
사회봉사활동	610, 620, 630, 641-644, 649
사교오락활동	711-713, 719, 773, 775
TV, 신문 등 대중매체 이용	721-726
자기개발활동	727, 731-734, 739, 771, 774
종교활동	741-743
문화관람활동	751-754, 759
스포츠 및 레저활동	761-766
단순 휴식	776, 777

* 통계청(2000)의 '행동분류표' 상의 분류번호로,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 내용은 <표 5> 참조.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210)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5,320	40.3	자가용유무	유	4,084	30.9
	여	7,890	59.7		무	9,126	69.1
연령	60-64세	4,618	35.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131	8.6
	65-74세	5,749	43.5		6대광역시	3,295	24.9
	75세 이상	2,843	21.5		그 외 지역	8,784	66.5
학력	무학	5,452	41.3	농가여부	농가	4,434	33.6
	초등졸	4,615	34.9		비농가	8,776	66.4
	중고졸	2,417	18.3	주택유형	단독주택	10,151	76.8
	초대졸이상	726	5.5		아파트	1,878	14.2
취업여부	취업	6,253	47.3	주택소유여부	연립, 다세대	1,181	8.9
	비취업	6,957	52.7		자가소유	11,067	83.8
배우자유무	유	8,061	61.0	비소유		2,143	16.2
	무	5,149	39.0		거주면적	18평형이하	5,182
취학전 아동유무	유	1,510	11.4	19-25평형		4,715	35.7
	무	11,700	88.6	26평형이상	3,313	25.1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 중 여자는 약 60% 였으며, 연령은 65-74세가 약 44%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이 약 76%로 학력은 낮은 편이었으며, 비취업의 경우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신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9% 였으며, 가족원 중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약 11% 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의 6대 광역도시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의 9개의 도를 구분하여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를 포함한 도시지역 거주자는 약 34% 였다. 이에 반해 비농가는 약 66%로 나타났다.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용이 있는 경우는 약 31% 였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약 77%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83.8%)으로 나타났다. 거주면적은 한국주택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거주전용 면적인 18평 초과-25.7평 이하가 약 36%로 나타났다.

2. 1일 여가활동시간의 일반적 경향

노년기 1일 여가활동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여가활동유형별 세부항목 시간과 전체 여가시간을 분석하였다. 1일 여가활동시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일 여가활동 유형별 시간의 일반적 경향 (M=시간:분, N=13,210)

유형	행동분류(번호)	M	SD	전체
사회 봉사 활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610)	0:03	3.05	0:05 (3.73)
	반사회 등 지역 공동체 활동(620)	0:01	1.70	
	집회 등 사회참여 활동 (630)	0:00	.64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자원봉사(641)	0:00	.37	
	교통지도 등 자녀교육관련 자원봉사(642)	0:00	.00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643)	0:00	.90	
	재해지역 주민돕기 등 자원봉사(644)	0:00	.00	
헌혈, 상담 등 기타 자원봉사(649)	0:00	.57		
사교 오락 활동	가족, 친구 등 교제관련 전화통화(711)	0:04	1.18	1:22 (10.41)
	가족·친척과의 교제(712)	0:13	3.82	
	그외 사람들과의 교제(713)	0:47	7.70	
	각종 교제관련 행동(719)	0:01	.73	
	바둑, 장기 등 놀이(773)	0:13	5.04	
술, 춤, 노래방 등 유흥(775)	0:03	2.00		
대중 매체 이용	신문 보기(721)	0:06	2.00	3:13 (14.54)
	잡지 보기(722)	0:00	.51	
	TV 시청(723)	3:02	13.8	
	비디오 시청(724)	0:00	.48	
	라디오 청취(725)	0:04	2.62	
CD, Tape 등 음악 듣기(726)	0:01	.69		

자기 개발 활동	인터넷, PC통신 등 컴퓨터 정보이용(727)	0:00	.27	0:06 (3.04)
	외국어 관련 학습(731)	0:00	.31	
	컴퓨터 관련 학습(732)	0:00	.46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733)	0:00	.23	
	취미 관련 강습(734)	0:00	.51	
	각종 일반인의 학습(739)	0:00	.57	
	독서(771)	0:04	2.36	
서예, 만들기, 연주하기 등 취미활동(774)	0:01	1.40		
종교 활동	개인적 종교 활동(741)	0:07	3.57	0:16 (5.74)
	종교 집회·모임 참가(742)	0:08	3.57	
	그외 종교 관련 행동(743)	0:01	.87	
문화 관람 활동	극장/비디오방 등 영화관람(751)	0:00	.14	0:02 (1.91)
	연극, 콘서트(752)	0:00	.20	
	전시회, 박물관(753)	0:00	.21	
	스포츠 경기 관람(754)	0:00	.65	
	각종 관람 및 행사 참여관련 행동(759)	0:01	1.76	
스포 츠 및 레저 활동	걷기, 산책(761)	0:18	4.27	0:29 (5.92)
	등산, 하이킹, 산림욕(762)	0:04	2.58	
	수영 등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763)	0:03	1.47	
	볼링, 당구 등 그외의 스포츠(764)	0:01	1.23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765)	0:02	1.95	
낚시 등 그 외 집밖의 레저활동(766)	0:01	1.62		
단순 휴식	담배 피우기(776)	0:02	.91	0:49
전체	아무것도 안하고 쉬(777)	0:47	7.50	(7.57)
		6:22(21.26)		

전체 여가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대 이상의 노인이 1일 평균 8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갖는다는 한국방송공사(1995)의 '국민생활시간조사' 보다 더 적은 시간이다. 그 중 사회봉사활동시간은 1일 평균 5분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와 '반사회 등 지역 공동체 활동' 등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회참여적인 자원봉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교 오락활동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TV 등 대중매체 이용은 1일 평균 3시간 13분으로 전체 여가 시간에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긴 여가활동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TV시청은 약 3시간으로 하루 여가활동 중 가장 긴 여가시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한국방송공사, 1995)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는 주로 TV시청으로 노년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개발활동은 1일 평균 6분으로 매우 저조했으며 특히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관련되는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은 1일 평균 16분이었으며, 문화관람활동은 2분으로 가장 저조한 여가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1일 평균 29분으로 나타났으며 걷기, 산책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거나 아무 것도 안하고 쉬는 단순 휴식은 1일 49분으로 조사되어 TV·신문 등 대중매체 이용, 사교오락활동에 이어 노년기 여가시간을 대체로 보내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나라 노인들은 하루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 일상적인 교제활동, 아무 것도 안하고 쉬 등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수동적인 여가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학습활동, 문화관람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도 소극적인 걸기, 산책만이 주로 이루어질 뿐 등산, 수영, 배드민턴 등의 적극적인 스포츠활동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3. 배경변인에 따른 1일 여가활동유형별 시간

노년기 여가활동유형별 시간이 그들의 개인, 가족, 거주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우선 개인관련변인인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은 여자노인보다 사교오락활동, TV·신문 등 대중매체 이용, 자기개발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애련·한내창(199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종교활동, 문화관람활동, 단순휴식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종교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75세 미만 연령층의 노인들에 비해 사교오락활동과 TV 등 대중매체 이용, 단순휴식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은 다른 연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1일 여가활동별 시간 비교(M=시간:분, N=13,210)

배경변인	종속변인			사회봉사			사교오락			대중매체			자기개발			종교활동			문화관람			스포츠활동			단순휴식			전체여가		
	변인	구간	빈도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개인관련변인	성별	남	5,220	0:04	3:30		1:25	11.0		3:44	15.4		0:11	4.01		0:07	3.64		0:0	1.51		0:43	7.14		0:46	6.67		7:01	22.0	
		여	7,890	0:05	4:00		1:19	10.0		2:53	13.5		0:03	1.99		0:22	6.74		0:0	2.14		0:20	4.70		0:52	8.12		5:56	20.3	
		T값			-1.84			3.09*			19.05***			13.47**			-16.40***			-3.83**			21.08***			-4.57***			17.16***	
	연령	60-64세	4,618	0:06	4:08	A	1:09	9.39	C	2:52	13.4	C	0:07	3.27	A	0:14	5.39	B	0:0	1.54		0:29	5.96		0:35	5.20	C	5:33	20.4	C
		65-74세	5,749	0:06	4:00	A	1:23	10.5	B	3:13	14.5	B	0:06	2.99	A	0:17	5.80	A	0:0	2.14		0:30	6.06		0:46	6.71	B	6:24	21.1	B
		75세 이상	2,843	0:03	2:41	B	1:38	11.5	A	3:48	15.8	A	0:04	2.71	B	0:16	6.16	A	0:0	1.96		0:27	5.52		1:20	10.9	A	7:38	20.6	A
		F값			5.94*			70.19***			133.93***			6.76*			4.54**			2.77			2.20			329.79***			322.82***	
	학력	무학	5,452	0:06	4:28		1:26	10.7	A	3:00	14.1	C	0:02	1.67	C	0:14	5.28	B	0:0	2.15		0:21	5.04	D	1:02	9.14	A	6:12	21.1	C
		초등졸	4,615	0:05	3:51		1:19	10.4	B	3:05	14.1	C	0:03	2.00	C	0:17	6.10	B	0:0	1.83		0:26	5.45	C	0:43	6.22	B	5:59	21.0	C
		중고졸	2,417	0:04	2:90		1:19	10.1	B	3:43	15.4	B	0:12	4.29	B	0:18	6.12	A	0:0	1.47		0:43	7.31	B	0:37	5.63	C	6:58	21.4	B
초대졸이상		726	0:04	3:17		1:16	9.48	B	4:07	14.9	A	0:37	6.97	A	0:16	5.39	B	0:0	1.73		1:01	7.57	A	0:36	6.37	C	7:58	20.2	A	
	F값			2.12			5.61**			89.07***			349.61***			5.53**			.48			160.20***			93.70***			96.36***		
취업여부	취업	6,253	0:06	4:36		0:57	8.45		2:22	11.8		0:03	2.11		0:08	3.66		0:0	1.32		0:13	3.80		0:40	5.80		4:31	17.8		
	비취업	6,957	0:04	3:07		1:44	11.5		3:59	15.3		0:09	3.67		0:23	7.03		0:0	2.31		0:43	7.02		0:58	8.79		8:01	19.1		
	T값			2.78*			-26.61***			-40.66***			-10.36**			-16.03***			-4.38**			-30.86***			-13.42***			-65.30***		
가족관련변인	배우자	유	8,061	0:05	3:73		1:15	9.95		3:12	14.3		0:08	3.39		0:11	4.54		0:0	1.66		0:32	6.21		0:43	6.36		6:06	21.2	
		무	5,149	0:06	3:75		1:33	11.0		3:15	14.9		0:04	2.39		0:23	7.17		0:0	2.24		0:24	5.38		1:00	9.05		6:41	21.1	
		T값			-1.23			-9.78***			-1.37			8.29***			-11.06***			-2.15*			8.18***			-11.67***			-10.71***	
	취학전 아동	유	1,510	0:04	3:30		1:13	10.0		3:16	14.7		0:05	2.84		0:15	5.35		0:0	2.41		0:30	5.94		0:41	7.02		6:06	20.7	
		무	11,700	0:05	3:80		1:23	10.5		3:13	14.5		0:06	3.07		0:16	5.79		0:0	1.83		0:29	5.91		0:51	7.63		6:24	21.3	
		T값			-1.81			-3.54***			.77			-95			-80			1.68			.66			-5.00***			-3.16**	
자가용	유	4,084	0:04	3:53		1:29	11.1		3:28	14.5		0:09	3.83		0:18	5.80		0:0	2.21		0:34	6.38		0:47	7.73		6:50	21.2		
	무	9,126	0:05	3:82		1:19	10.1		3:07	14.5		0:05	2.60		0:15	5.72		0:0	1.76		0:27	5.68		0:51	7.49		6:09	21.2		
	T값			-1.44			5.01***			7.79***			7.22***			2.14*			1.29			6.35***			-2.93*			10.35***		
거주관련변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131	0:04	3:18	B	1:22	11.0	B	3:50	16.4	A	0:12	4.05	A	0:29	7.76	A	0:0	2.75		0:38	6.64	A	0:45	7.73		7:23	21.4	A
		6개 광역시	3,295	0:02	2:13	B	1:30	10.5	A	3:37	15.4	B	0:09	3.80	B	0:22	6.78	B	0:0	1.72		0:41	7.13	A	0:50	7.97		7:12	21.5	A
		그 외 지역	8,784	0:06	4:23	A	1:19	10.3	B	3:00	13.7	C	0:04	2.51	C	0:12	4.91	C	0:0	1.84		0:23	5.20	B	0:50	7.39		5:55	20.6	B
		F값			13.52***			13.80***			119.23***			59.00***			68.41***			.64			120.54***			2.02			215.48***	
	농가여부	농가	4,434	0:07	4:87		1:03	9.35		2:31	11.9		0:02	1.94		0:06	3.63		0:0	1.31		0:12	3.63		0:50	7.20		4:53	19.0	
		비농가	8,776	0:04	3:00		1:31	10.8		3:35	15.3		0:08	3.46		0:21	6.50		0:0	2.15		0:38	6.62		0:49	7.75		7:07	20.9	
		T값			3.95			-15.31***			-26.31***			-11.51**			-16.56***			-4.46**			-28.83***			1.14			-36.95***	
	주택유형	단독주택	10,151	0:06	3:98	A	1:20	10.3	B	3:03	14.0	C	0:05	2.66	C	0:13	5.27	C	0:0	1.82	B	0:25	5.51	C	0:51	7.63	A	6:04	21.1	C
		아파트	1,878	0:02	1:95	B	1:31	10.7	A	3:52	15.6	A	0:13	4.44	A	0:27	7.22	A	0:0	1.90	B	0:44	6.96	A	0:43	7.40	B	7:34	19.8	A
		연립다세대	1,181	0:05	3:71	A	1:22	10.9	B	3:39	16.3	B	0:07	3.27	B	0:25	6.66	B	0:0	2.56	B	0:37	6.95	B	0:46	7.22	B	7:01	22.2	B
	F값			5.73*			9.01***			113.03***			57.94***			54.09***			4.34*			87.54***			8.72**			170.01***		
주택소유	자가소유	7,067	0:05	3:89		1:20	10.3		3:09	14.2		0:06	3.10		0:14	5.35		0:0	1.87		0:29	5.95		0:49	7.45		6:15	21.2		
	비소유	2,143	0:04	2:87		1:28	10.7		3:33	16.1		0:06	2.81		0:25	7.40		0:0	2.09		0:31	5.73		0:51	8.13		6:59	21.4		
	T값			2.09*			-3.26**			-6.29**			.88			-6.78***			.26			-1.37			-1.14			-8.92***		
거주면적	18평이하	5,182	0:05	3:20		1:24	10.4		3:08	14.9	B	0:04	2.53	B	0:17	5.92		0:0	1.90		0:27	5.86	B	0:52	7.84	A	6:17	21.4	B	
	19-25평	4,715	0:06	4:08		1:20	10.5		3:13	14.4	B	0:05	2.56	B	0:15	5.74		0:0	1.89		0:27	5.68	B	0:48	7.29	B	6:17	21.4	B	
	26평이상	3,313	0:05	3:98		1:21	10.3		3:22	14.1	A	0:11	4.16	A	0:15	5.47		0:0	1.96		0:33	6.29	A	0:47	7.51	B	6:36	20.7	A	
	F값			1.09			1.52			9.80***			59.76***			1.37			.12			12.83***			4.62*			10.08***		

*P<.05, **P<.01, ***P<.001

령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은 '휴식'을 많이 취한다는 김애련·한내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력에 따라서는 단순 휴식시간은 무학 집단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을 덜 받은 노인들은 여가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이선미(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적극적인 여가활동인 자기개발과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초대졸업 이상의 집단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개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성연·박미석(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일 여가활동별 시간은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봉사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시간에서 비취업의 경우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전의 노인들은 직업으로 인해 여가시간의 부족을 경험한다는 이선미(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시간은 취업의 경우가 비취업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관련변인인 배우자유무에 따라서는 여가활동별로 다양한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사교오락활동과 종교활동, 단순휴식 시간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자기개발활동과 스포츠 및 레저활동 시간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애련·한내창(1997)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취학전 아동이 없는 경우가 사교오락활동과 단순휴식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유무에 따라서는 자가용이 있는 경우에 사교오락활동, 대중매체 이용,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 전반적으로 더 긴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휴식활동은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용 유무가 이동 용이성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관련변인인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대중매체이용,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등의 여가활동시간이 그 외 지역거주 노인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봉사활동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비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그 외 지역 거주 노인보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의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가 노인들이 농가 노인들보다 사교오락활동, TV 등 대중매체 이용,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문화관람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농촌간의 지역에 따른 여가경험과 여가시설, 역할수행 등과 관련된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대체로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가 단독주택 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여가활동시

간을 나타냈으며, 단순휴식 시간은 단독주택의 경우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홍성희·송정선, 1997)와 일치하는 것으로 주택유형에 따른 편의, 여가시설 등 근린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활동시간은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소유한 집단보다 사교오락활동, TV 등 대중매체 이용, 종교활동에서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봉사활동시간은 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소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면적은 26평 이상의 집단이 26평 미만의 거주집단보다 자기개발활동과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 비교적 여가비용이 큰 적극적 여가활동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휴식시간은 18평 이하의 경우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면적과 경제력의 상관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4.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여가활동시간

우선 평일 전체 여가활동시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 취학전 아동유무, 자가용유무, 거주지역, 농가여부, 주택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면적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관련변인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냈다. 학력에 따라서는 초등졸 이하, 중졸, 초대졸 이상의 순으로, 취업의 경우보다는 비취업의 경우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변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및 취학전 아동이 없는 경우, 자가용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나타냈다. 거주관련변인에 따라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농가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거주면적이 26평 이상일 경우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 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람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사회참여와 가족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의 감소로 인해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에 있어서 여가는 이를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노인들이 1일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은 개인, 가족, 거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여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배

우자유무, 취학전 아동 및 자가용 유무, 거주지역, 농가여부, 주택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면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을 통해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선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의 1일 전체 여가활동시간을 살펴본 결과, 노년기 전체 여가활동시간은 6시간 22분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 노인들은 하루 여가시간을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TV 시청시간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대 미디어사회에서 활동적인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노년기 여가활동의 유일한 수단은 TV 시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노인 대상의 전문 TV 채널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편이다. 이에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교양적이고, 보람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채널 신설이 요망된다.

또한 우리 나라 노인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과 자기개발 학습활동, 문화관람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 노인 개개인이 실제로 능동적이고 신체적인 여가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이러한 여가활동은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좀 더 다양한 여가시설이용에 있어서 노인우대요금적용, 이에 대한 정부지원과 노인복지단체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1일 여가활동유형별 시간은 노인의 개인, 가족, 거주 제반특성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75세 이상, 초대졸 이상, 취업의 경우보다는 비취업의 경우가, 배우자 및 취학전 아동이 없는 경우, 자가용이 있는 경우,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농가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비소유인 경우, 거주면적이 26평 이상일 경우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개발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시간은 남자노인이, 초대졸 이상, 비취업의 경우, 배우자 및 자가용이 있는 경우, 도시지역 거주, 비농가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거주면적이 26평 이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단순 휴식 시간은 여자노인이, 75세 이상의 노인, 무학의 경우, 비취업의 경우, 배우자, 취학전 아동, 자가용이 없는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18평 이하의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변인들이 노년기 여가활동참여와 가장 관련이 많은 여가에 대한 개인적 성향, 건강상태, 경제상태, 여가시설 등의 제반 여가여건과 관련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하여 노년기에도 여자노인들은 집안일 등의 일정한 가사노동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1일 여가활동시간이 남자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히 여성노인의

여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인정, 복지회관, 각 읍·면·구청단위의 여가교육과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여성노인의 성역할 성향에 맞는 자기개발적 취미활동에 참여케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학력은 여가기회 또는 여가동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여가욕구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흥미로운 스포츠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여부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비취업에 비해 취업의 경우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공적 사회참여에서 은퇴하는 60세 이상의 연령이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업활동을 계속해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들이 만족스러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수당지원 등의 노인복지정책이 더욱 요망된다.

배우자 유무는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심리적, 인적 자원과 관련이 되므로 여가시간을 함께 할 배우자가 없는 노인 또는 노인 단독세대의 경우 대외적인 여가활동의 부진으로 고독감과 소외감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이들을 위한 단체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와 참여유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택유형에 따라 여가시간이 유의하게 차이 난 결과는 제반 근린 주거시설과 관련되는 것으로,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등의 여가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성과 대표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노년기 1일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을 여가활동 유형별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의 개인, 가족, 거주 제반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시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사회정책적으로 노인의 제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노년기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연령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념상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 노년기의 건강과 경제능력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들의 여가활동시간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노년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참여도가 낮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제약이 많으므로 이러한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여가활동에 대한 영향변인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들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이 여가활동시간 및 참여도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접수일 : 2002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3년 1월 14일

【참 고 문 헌】

- 김성연·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애련·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 김종만(1998).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산신도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식(1983).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133-146.
- 서병숙(1993).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형중(1994). 여가활동참여도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4(2), 90-104.
-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이윤미(1997).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1-16.
- 이현숙(1994). 노인의 여가활동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숙(1985). 도시노인의 노인정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활동이론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실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최성재(1994).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미자(1997). 한국노인의 여가실태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일(1999). 노인의 TV시청 실태와 삶의 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86). 노인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 233-258.
-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보고서, 1999. 1권: 생활시간량편. 2권: 시간간격별 행위자비율편. (<http://www.nso.go.kr>)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한국방송공사(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실태와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 한혜원(2000).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홍성희·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 홍성희·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3, 25-44.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en, K.R. & Chin-Sang, V.(1990). A Lifetime of work: the context and meaning of leisure for aging black woman. *The Gerontologist* 30, 734-740.
- Atchley, R.C.(1980). *Social forces in later life*(2nd ed), Belmont, C.A.: Wordsworth Publishing Co.
- Cumming, E. & Henry, W.E.(1979). *Growing old*. NY: Basic Books Publishing Co., Inc.
- Gordon, C., Gaitz, C.M. & Scott, J.(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310-341), NY: Van Nostrand.
- Havighurst, R.G.(1974). *Aging in america: implication for educ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Inc.
- Iso-Ahola, S.E., Jackson, E. & Dunn, E.(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27-249.
- Kaplan, M.(1960). The Uses of leisure, In C. Tibbitts(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407-443).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lly, J.R.(1993). *Activity and aging: staying involved in later lif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elly, J.R. & Steinkamp, M.W.(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 9, 190-200.
- Larson, R.(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Neugarten, B.L., Havighurst, R.J. & Tobin, S.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3-143
- Reizes, D.C., Mutran, E.J. & Verrill L.A.(1995). Activity and self-esteem: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activity theory. *Research On Aging* 17, 260-277.